투데이 칼럼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심각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며 '낟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할 정도다.

농민들의 노동 의욕 저하로 인한 낮은 생산성,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때문이다. 장기간 국경 봉쇄로 농자재 부족과 식량 수입 중단도 문제다.

인구 고령화도 만성적인 식량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 체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국경 개방,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 원인은 먼저 집단 농장 체제의 비효율성이다. 집단 농장에서는 농부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만한 인센티브, 즉 동기와 대가가 별로 없다.

북한 당국은 대규모 군중 동원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 왔지만 부작용이 컸다. 북한에서는 풀베기 전투, 김매기 전투, 모내기 전투식으로 '전투'라는 이름을 달아서 동원하는 기간이 있다.

문제는 대규모 학생 동원 등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이다. 모내기도 일정하게 경험을 쌓아야 한다. 동원된 학생들은 모내기를 제대로 못한다. 농민들이 다시 고쳐 심어야 한다. 오히려 부담이 많아진다.

숙식도 보장해줘야 한다.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 등 자연 재해도 큰 원인이다. 지난해 함경북도,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 해도 함경남도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 재해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벌목에 따른 산림 황폐화가 기후 변화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 방역을 이유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국경 봉쇄도 식량난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늘 자체 생산만으로는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입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지원도 있어야 한다. 올해는 수입과 함께 외부 지원도 받지 못했다.

농민들은 텃밭처럼 자신의 수익에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협동농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그래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 사용료와 물 사용료, 영농 물자, 비료 대금을 현물로 상납하면 나머지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협동농장이 갖는 제도다. 가족 단위인 3-5명으로 농업을 허용했다.

협동농장 틀 속에서 사실상 개인농을 허용한 것이다. 그 정도까지 개혁하게 되면 완전히 시장경제화가 되는 것이다.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됐지만 북한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 했다.

수익도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북한도 올 가을 수확으로 당장의 식량 위기는 넘길 것이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내년 봄이 되면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국경을 닫고만 있을 순 없다.

국경을 열어야 식량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열어서 수입할 수 있는 능력만큼 수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4~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식량 프로그램, 혹은 유엔기구 등으로부터 꾸준히 식량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제재가 시행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식량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북 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등 국경 봉쇄 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제안을 받을지 회의적이다.

세계 경제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보건 의료 물품이나 식량 등의 지원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게다가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진다면 국경을 개방하더라도 식량 지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북한 식량 상황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 허용 여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참전용사들 기여 만큼 제 몫 받도록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매릴랜드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염 물질과 환경 오염 등에 노출된 퇴역군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 겐트 빛 축제 감상하는 방문객들

11일(현지시간) 벨기에 겐트에서 '2021 겐트 빛 축제'가 열려 관람객들이 조명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겐트 빛 축제는 지난 10일 개막해 30여 점의 국제적인 조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14일까지 열린다.

사 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침체된 전북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복합 리조트(resort)란 카지노, 호텔, 쇼핑몰, 대형 회의장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를 말한다. 이미 국내에는 호텔과 연계한 콘도 등 복합 리조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 제약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 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용 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 투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새만금의 비전,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라고 말을 해왔다.

문제는 실천이다. 얼마만큼 재원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얼마나 사업비를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새만금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아직도 갯벌 보존과 관련해서 새만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도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과연 실현될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먼저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관해 공감대를 넓혀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는 새만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일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은 전 세계에 새만금 랜드 마크를 새롭게 알리는 일이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새만금 랜드 마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발 속도가 중요하다.

전주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전주 일부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일이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잘 이행하고 있다.

극히 일부 시내버스 때문에 전체 시내버스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 지속적인 평가를 벌이고 있다.

140명의 전주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모니터링을 했다. 5개월 동안 모두 5,828회에 걸쳐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886건의 불편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관리 문제 609건, 안전 운행 미흡 118건, 승객 응대 태도, 휴대폰 사용 여부 등 불친절 117건, 과속·난폭 운전 등 운전 실태 28건, 차량 내·외부 청소 상태와 훼손 시설물 방치 14건 등이다.

지난 7월 전주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 업계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결국 인상됐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학생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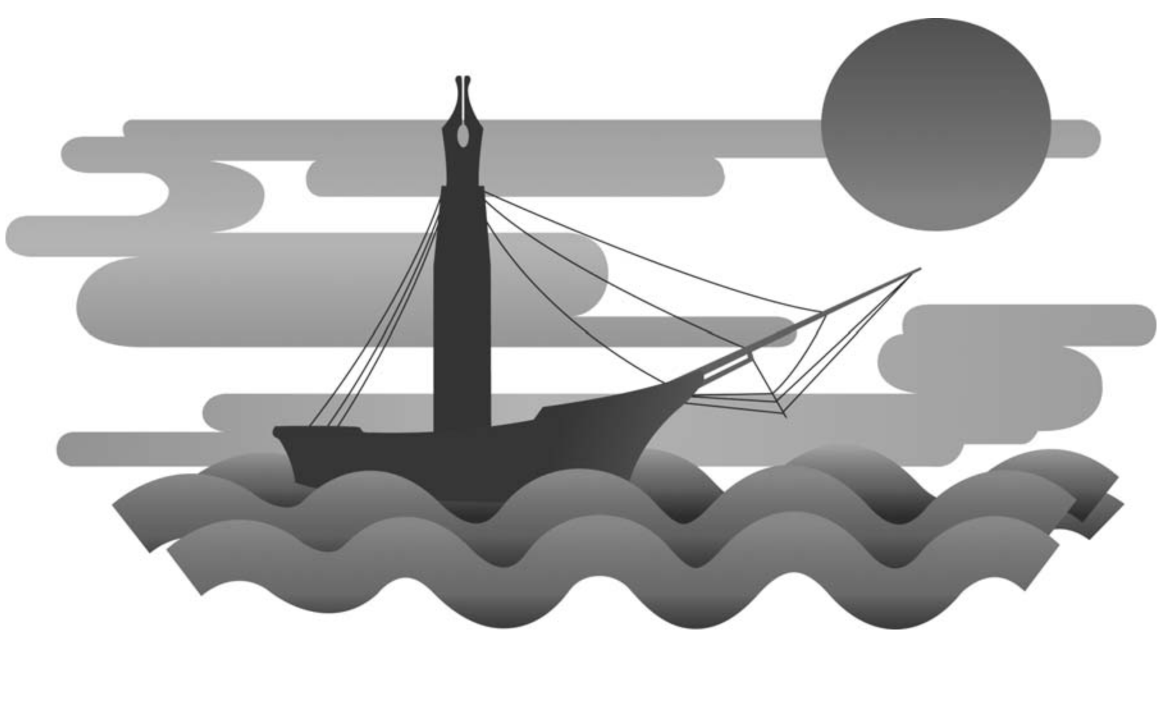
하지만 요금 인상 시행 후 1개월을 지나는 동안 업체의 개선 약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객을 대하는 운전자의 말투와 난폭 운전이다.

노선을 확인하는 승객의 물음에 대답하는 운전자의 말투는 너무 고압적이고 퉁명스럽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은 당황하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노약자가 자리에 앉거나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급히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서비스업이다. 불친절과 과속, 난폭 운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위협이다. 버스 업계의 개선과 행정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